

순천 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 개장

업동호수공원 인근 3천여㎡
설계·명칭 어린이 의견 반영

순천시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가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6일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 준공 기념식이 최근 용당동 업동호수공원에서 기적의 놀이터 완성을 기다리던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영풍발품’으로 시작된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그동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

순천시에서는 제1호 놀이터 ‘영풍발품’에 이어 2017년 2호 ‘작전을 시작하지’, 2018년 3호 ‘시가모노(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를 조성해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전국에서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배워가기 위해 500여개의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단체가 방문했다.

제4호 놀이터 ‘올라올라’는 명칭 공모를 통해 용당초등학교 4학년 정초운 학생이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준공 행사에서는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의 주인공인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난타공연, 용당초등학교 방송댄스 공연이 펼쳐졌고 비눗방울 체험, 해나스타키 체험, 풍선 공연 쇼 등 어린이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는 용당동 업동호수공원 인근 3천㎡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네트놀이대, 원통형미끄럼틀, 넓은미끄럼틀 등이 설치돼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가 최근 문을 열었다. ‘올라올라’는 용당동 업동호수공원 인근 3천㎡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네트놀이대, 원통형미끄럼틀, 넓은미끄럼틀 등이 설치돼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미끄럼틀, 넓은미끄럼틀 등이 설치됐다.

순천시는 4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입지선정과 용당 지역 주민 간담회 등 놀이터 유형과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했고 어린이들의 희망과 바람을 담아내기 위해 어린이 디자인스쿨 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어린이 감리단이 실제 기적의 놀이터 조성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놀이터의 주인이 어린이라는 시각에서 어린이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제4호 ‘올라올라’는 기존 지형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놀이터로 와이드슬라이드, 원통형 미끄럼틀, 네트놀이대로 조성돼 순천 기적의 놀이터 특색을 더하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린이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창의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기적의 놀이터가 지향하는 방향이다”며 “기적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 선정

80억 규모...공공 임대주택 등 내년까지 추진

고흥군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대상지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부지 확보 여부, 주택 공급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등의 평가를 통해 충북 괴산, 충남 서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8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30호 내외의 공공 임대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육아시설, 문화, 여가, 체육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 인근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과 신흥부부,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이다.

송귀근 군수는 “중앙부처, 전남도를 끊임없이 방문해 청년들에 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자리 연계성, 입주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노력한 결과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며 “고흥에 청년들이 돌아와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군수는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연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 귀촌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흥=신용원 기자

지방 하수도 경영평가
여수시, 우수기관 선정

여수시가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공사공단 CED리더십 포럼식 시상식에서 “2018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보통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을 심사해서 나온 결과다. 여수시는 하수처리효율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등 분야에 걸쳐 우수평가를 인정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행정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하수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과 감동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郡, ‘장흥 바로알기 투어’ 눈길

1년 이내 전입자 23명 대상

장흥군이 새내기 군민과 함께하는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

장흥군은 6일 “최근 장흥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장흥군으로 생활터전을 옮긴 지 1개월 이상 1년 이내 전입자 23명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동양의 3보림의 하나로 천년고찰인 유치 보림사와 수물의 역사를 함께한 장흥담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신 해동

사까지 애국과 충절이 살아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석대들 전투를 아픈 역사를 조명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고려 인종의 비 공예태후의 사당이 모셔진 정안사로 찾았다. 이어 안양면 기산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으로 장흥식품(대표 천정자)을 방문해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공유 및 선진기업운영 등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투어를 통해 물과 숲의 고장 정남진 장흥군으로 자긍심과 애郷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입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고병근 기자

‘광양 해피데이’ 시민 소통창구 역할 ‘톡톡’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광양 해피데이’가 시민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양시는 6일 “지난달 30일 방목길 광양시 부시장의 주재로 ‘광양 해피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광양 해피데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개인의 억울한 사항을 토로하거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소통의 장이다.

19명의 시민이 찾아온 이번 ‘광양 해피데이’는 ▲다양면 소확정마을 마을안길 도로폭 확장 ▲봉강면 개풍마을 상·하수도 설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육룡면 산본마을 하천부지를 활용한 마을 주차 공간 조성 ▲매실·밤나무 재배지 풀베기 보조사업 지원 ▲강남병원 뒤편 상가 주변 도로정비 ▲민간 체육시설 영업지장 대책마련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지도·점검 등 총 2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허선식 기자



담양보건소, 한재초교서 금연선포식

흡연예방심화학교 체험교실 운영

담양군보건소(소장 김순복)는 최근 제32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관내 흡연 예방심화학교로 선정된 한재초등학교(교장 김남호) 전교생 130여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 및 흡연예방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한재초등학교 운동회와 함께 치러진 이번 금연선포식은 학생대표의 선서로 교내 금연 선언과 평생 금연을 약속했으

며 이어 진행된 흡연예방 체험교실에서는 흡연 신체모형 교육, 폐활량측정 체험, 평생금연서약나무 만들기 및 금연불링체험 등을 운영해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흡연예방심화학교인 한재초등학교와 함께 금연사업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오피스텔 [급 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웅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뒤편 1분 (코너)
- 1층 (상가)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웅2억5천 ,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 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 171평)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 북구 용봉동 (다기구원룸) (토 80평, 건 165평)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